

NEWS

2025년 8월 6일 수요일

‘SRF중재’ 잠정 연기... 광주시·포스코·SPC 협의

공정위,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 설립동지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린다. 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조합원수는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은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로 완화한다. 연합뉴스

▶1면 '특별재난지역'서 계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 을)은 이날 행안위 질의에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은 각각 자치구 단위와 동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1차 선포에서 제외됐다”며 “2차 선포에서는 민생을 살피는 차원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광주에서는 사망 2명, 이재민 417명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총 3599건(공공 470건, 민간 3129건), 피해 복구비는 총 33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러나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대통령에게 건의되는 현행 재난 대처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광주 북구 등 일부 폭우 피해 지역은 지난 3일에 또다시 폭우 피해가 발생했고,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은 심각한 물난리를 겪었다.

이들 피해 지역에 현장에서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재난 대처가 뒤늦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로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 기준 현실화 등 대응체계 개선이 절실히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부담률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복구비와 생계지원금도 확대된다.

강 시장, 포스코이앤씨·청정빛고를 대표 면담서 결정 중재 중단·소송 전환 당위성 강조...8차 심리 늦추기로

광주 남구 양과동 가연성페기물연료화 시설(SRF)을 둘러싼 2100억원대 운영비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가 잠정 연기됐다.

광주시와 운영사인 청정빛고를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는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는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3자 합의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서울 포스코이앤씨에서 SRF제조 시설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청정빛고를 김호열 대표와 위탁관리업체인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등 SRF 시설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강 시장은 “2023년 SRF 중재 합의는 당시 나주시 상황으로 장기 중단됐던 SRF시설과 청정빛고를 조기 정상화, 광주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논의 과정서 최초 중재액보다 27배 증액된 2100억원을 요구한 것은

포스코이앤씨의 SRF 운영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떠넘기려는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중재절차를 즉각 멈추고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알권리와 권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공개적이고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와 청정빛고는 오는 25일료 예정된 대한상사중재원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짧은 기간에 속도감 있는 상호 실무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와 청정빛고는 2017년 1월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파쇄·건조해 고품질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청정빛고를 대표사는 포스코건설의 후신인 포스코이앤씨다.

계약기간은 2032년 1월까지 15년으로 광주시는 청정빛고에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광주SRF는 계약 체결 이듬해인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각종 소송 등으로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청정빛고는 같은해 12월 재가동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 고 짧은 기간에 속도감 있는 상호 실무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조정 과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청정빛고는 측은 이후 돌연 11개월 만인 지난 3월 신청 취지를 변경, 최초 신청 금액보다 27배 높은 2100억원으로 증액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 측이 합의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시간 증가·생산량 감소 등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중재 중단을 요청했다.

중재심판은 3심제인 일반 민·형사 재판, 2심제인 행정소송과 달리 한번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단심제다. 중재중단도 양측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포스코이앤씨 측이 거부해 오는 25일 8차 중재가 예정돼 있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청년상생형일자리 확대·지속을 위한 토론회’ 5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상생형일자리 확대·지속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미정·채은지 광주시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정은경 장관, 광주서 돌봄 현장 점검

오늘 북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간담회 참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광주 북구의 ‘전 국민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돌봄 통합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갖는다.

5일 북구에 따르면 이번 정 장관의 방문은 공공의료·복지 정책의 현장성과 제도화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전국 최초로 주치의 제도 실행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통합의료복지 모델을 구축해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대상을 수상, 지역 중심의 촘촘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인정받은 바 있다.

정 장관은 6일 오후 4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는 ‘북구 돌봄 통합지원 실행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중심 돌봄계획, 통합지원회의 운영사례, 보건·복지 협력사례에 대해 살핀다.

이후에는 북구보건소에서 ‘전 국민 주치의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보완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

도-도의회-대학, 전남 통합 국립의대 설립 ‘맞손’

특별위 출범 후 첫 공식 논의... 설립 전략·협력 방안 모색

전남도는 5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도의회·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국립의대 설립 전략·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전남도의회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출범한 것으로, 간담회에는 신민호·최선국 공동위원장과 박현숙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남도 국립의대 필요성, 새정부 대선공약 반영 현황, 국경과제

락 수립, 대외 홍보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순천대 문승태 대외협력부총장과 목포대 유천 의대설립추진 부단장은 “앞으로 지역 국립대학으로서 국립의과대학 유치가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실무적 준비와 정책적 대응 등 모든 역량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도민의 34년 염원인 국립의대 설립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의회·대학과 함께 자주 만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정부,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

쌀·한우 등 할인·공급 확대

정부가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추·수박·쌀·한우 등 주요 식품의 가격 할인이나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항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런 물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배추 방출 규모를 전월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사·유실 피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보급도 50만주 늘리기로 했다.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가격이 오른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하는 행사도 별도로 한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달에도 평시대비 3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선 국내 입식(병아리를 들이는 것)을 확대한다. 태국산 닭고기는 지난달 말까지 4000t 수급을 완료했고, 브라질산 닭고기는 이달 중순부터 수입한다.

계란은 산지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주 수급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물탱크도장공사



화장실공사

인중 및 특이 공방기반 실적

- 목포시 수영장물정비사업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비파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정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신행배수장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거문도등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삼향교 복용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 1번길 51 ☎ 061-285-6100